현대소설연구 (제7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8.12.72.419

‘수난’과 ‘모색’의 서사, 그리고 ‘선택’의 문제
－전경화된 ‘고민’과 후경화된 ‘희생’－

최 성 윤*

요 약

본 논문은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을 연결고리로 하여 위로 고전소설 「주생전」과 아래로 1930년대 최명익의 소설 「무성격자」, 「심문」을 함께 분석한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된 네 편의 작품은 창작 시기와 배경에 큰 차이가 있으나 서사구조 및 인물 구도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들은 공히 방황하거나 고민하는 남성 인물과 버림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여성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남성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들의 선택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고민은 지속된다. 이에 반해 여성 인물들은 작품의 서두에 이미 모종의 선택을 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최초의 선택이 잘못된 탓에 작품 속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의 힘을 빌려 삶의 양상을 바꾸려 희망하지만, 남성 인물들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주저한다. 여성 인물은 고난은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결국에는 비극적 숙명의 결말에 다다른다.

요컨대 이 작품들에는 남성 인물들의 방황과 고민이 전경화된 모색의 서사와 여성 인물들의 숙명과 희생이 후경화된 수난의 서사가 함께 전개된다. 특히 이광수의 『무정』은 전례를 찾기 힘든 ‘고민의 형식’을 시도한 점에서 고전 서사와 구별되는 작법론적 근대성을 획득하였다. 이어 「무성격자」, 「심문」의 최명익은 작품 속 남성 인물들을 매개로 하여 전망을 탐색하였다. 남성 인물 반대편의 여성 인물은, 그것이 온당한 것이든 그렇지

* 고려대학교 강사

않든 작가의 당대 인식 수준을 반영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주제어: 「주생전」, 『무정』, 「무성격자」, 「심문」, 선택, 모색, 수난, 고민, 고민의 형식, 남성 인물, 여성 인물, 상호텍스트성, 텍스트의 계보

목차

1. 머리말
2. 선택의 지연과 모색의 서사
3. 선택의 오류와 수난의 서사
4. 맺음말

1. 머리말

김동인은 80여 년 전 「춘원연구」에서 『무정』의 인물 형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적어도 형식은 이만치 약하고 줏대업는 人物이다.
> 이러한 줏대업는 人物을 가지고 作者가 自己의 戀愛觀을 說明하려 하고 新人生觀이며 新道德을 말하려 하니 여간 힘든 노릇이 아닐 것이다. 처음부터 끗까지 련달아 나오는 矛盾이 모도, 作者가 主人公의 性格을 잘못 選擇한 데 잇다. 이러한 줏대업고 定見업고 자기의 主張이 업는 人物에게 (저 곳 속담말과 가치) 竹に棒を 접한 것가치 超人的이며 巨人的인 思想을 먹음게 하엿스니 어찌 矛盾이 생기지 안흐랴.[1]

1) 김치홍 편저, 『김동인 평론전집』, 삼영사, 1984, 96-97면. 해당 부분은 『삼천리』 1935년 1월호의 3회 연재분에 수록되어 있던 것이다.

약하고 강한 것을 떠나 김동인의 말처럼 형식은 과연 줏대가 없어 보이고, 세상 걱정은 다 짊어진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된 반성보다는 늘 변명만 늘어놓는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선택은 계속해서 지연되곤 한다.

김동인은 『무정』의 작중인물 형식을 작가 이광수와 덮어놓고 동일시하면서까지 그 성격적 결함을 비판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고민하는 남성 인물의 창조는 우리 소설사를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어 놓았다. 『무정』의 남성 인물 형식은 영채와 선형 사이에서, 과거의 의리와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했다. 우리 소설사에서 그런 남성 인물은 일찍이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런가 하면 『무정』의 영채는 신소설을 포함한 전대 이야기문학의 여주인공과 많이 닮았다. 영채에게 일생의 향방을 결정할 만한 선택의 상황은 형식을 만나기 전에 미리 있었다. 영채는 수감된 부친과 오빠를 구하기 위해 자진해서 기생이 된 것이다. 이미 기생이 된 영채에게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다른 선택의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끝없는 수난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연히 구원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고민하는 남성 인물과 고난 받는 여성 인물의 입지 차이를 드러낸 근대소설 작품은 우리 소설사에 차고 넘친다.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의 서사적 역할에 따른 성격은 한 작품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근현대소설사 전체의 장에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본 논문은 고민하는 남성 인물과 고난 받는 여성 인물의 이야기가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거나 변주되었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2) 본 논문과 분석 방법 및 주안점은 다르지만, 김복순의 논문 「『무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대중문화연구』 14, 2005, 193-238면)는 서사적 층위에서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의 지위와 역할을 위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좋은 예이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고민하는지,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왜 늘 고민은 남성 인물에게 고난은 여성 인물에게 짐 지워지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민과 수난의 서사에는 선택의 상황이 가로놓여 있다. 고민하는 인물 앞에 놓인 선택지는 미래를 좌우하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고난 받는 인물이 미리 취한 선택지는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이유로 독자에게 제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선택의 지연과 모색의 서사

1) 모색의 전경화, 고민의 기원

『무정』이 우리 문학사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은 대개 그 자체의 기원적 성격을 인정하고 선구적 업적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서 비롯되거나 그것으로 귀결된다. 『무정』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그 독보적 성취를 긍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것은 기원으로서의 『무정』은 또한 무엇에서 기원하였는가를 논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단순하거나 단일한 원류를 밝히려는 무모한 시도로는 결코 해명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3)]

본 연구는 『무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숱한 논점 중 독립적인 서사를 거느린 남성 및 여성 인물의 구도, 그들이 지향하거나 영위하

3) 예컨대 문한별의 논문, 「이광수, 『무정』과 활자본 고소설 『채봉감별곡』의 공시적 비교 연구 -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한국근대문학연구』 5(2), 93-114면』)는 『무정』과 동시대에 독자들에게 소비되었던 신작구소설 『채봉감별곡』을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때 1920년대 및 그 이전의 소설사에서 고소설과 신소설, 근대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은 각 텍스트의 창작 및 발표 시기의 선후 관계보다 양식적 특질을 우선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는 삶의 좌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선택의 문제에 집중한다. 그런 면에서 참고할 만한 전대의 서사 텍스트로 권필의 「주생전」을 제시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양자 사이의 수직적 영향관계를 밝히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혀 둔다. 즉 이광수가 『무정』 창작 이전에 권필의 「주생전」 등을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주생전」이 창작되고 수용되던 당시 작가 및 독자의 가치관은 텍스트에 반영되어 당대 및 전대 텍스트와 상호텍스트의 맥락을 만들고 있었을 것이며, 이는 조선 후기나 구한말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서사텍스트에까지 일정한 흔적을 남긴 것이 분명하다. 특히 20세기 전반기의 독서 시장에서 전근대적 주제와 내용을 담은 신소설 텍스트는 물론 전근대적 주제와 서사 내용을 답습한 신소설 텍스트가 딱지본 등의 형태로 활발히 유통되었던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혈의 루』, 『무정』 등 새롭거나 근대적인 텍스트의 출현과 그 이전 일정 기간의 공백상태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공백 없이 지속된 익숙한 서사 텍스트의 유통과 소비이다.

「주생전」과 『무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유사점은 인물 구도에 있다. 두 작품은 모두 한 명의 남성 인물을 가운데 두고 두 명의 여성 인물이 경쟁하는, 삼각구도의 애정 서사로 볼 수 있다. 두 작품의 남성 인물인 '주생'과 '형식'이 모두 (실질적으로 그러나 잠정적으로) 가정교사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여성 인물 중 한 축을 담당하는 '배도'와 '영채'가 과거의 인연에 얽힌 사람들이며 현재는 기생 신분으로 전락하여 있다는 점 등은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공통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두 작품은 주생과 형식이 결국 선화와 선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배도와 영채를 무정하게 외면하는 이야기라는 전체 서사의 틀 또한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다. 애정 서사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주생전」은 갈 데 없는 전근대적 『무정』이고, 또한 『무정』은

근대적 「주생전」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무정』을 애정 서사로만 볼 수는 없다. 「주생전」이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당대적 의의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인물 설정과 선택의 구도에서 『무정』이 보여 준 주제 구현 방식은 당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애소설의 범주를 쉽사리 뛰어넘는다. 그리고 이는 작품의 전면에 배치된 형식이라는 인물의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독자들에게 제시된다.

단적으로 말해, 최소한 연애의 삼각 구도 안에서 주생은 고전 소설의 주인공답게 선택을 위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선화의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 배도는 이미 버려진 존재나 다름없어지는 것이다. 배도의 질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화의 집을 나오게 된 이후에도 주생의 연정은 오로지 선화를 향해서만 직진하며, 따라서 그림자처럼 곁에 머무는 배도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정』의 형식은 표면적으로 두 여성 사이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형식의 고민은 철저해야만 하고, 그에 따른 선택은 온당해야만 한다. 그래야 독자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고, 작가 이광수의 메시지가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인용한 김동인의 비평을 보면 형식의 고민과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불철저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음이 분명하다.

> 그러면 어떡할까. 영채를 어떻게 할까.
>
> 은인의 따님인 것을 위하여 내 아내를 삼을까. 그러하는 것이 내 도리에 마땅할까. 형식의 눈앞에는 어젯저녁 바로 이 방에 앉았던 영채의 모양이 보인다. '아버지는 옥중에서 굶어 돌아가시고……' 할 때의 눈물 그렁그렁한 영채의 얼굴은 과연 어여뻤다. 그때에 형식은 영채를 대하여 황홀하였었다. 그러고

> 영채와 회당에서 혼인할 광경과 영채와 자기와의 사이에 어여쁘고 튼튼한 아들과 딸이 많이 날 것도 상상하였었다. 형식은 지금, 어젯저녁에 영채가 앉았던 자리를 보고 그때의 광경과 그때의 상상하던 바를 생각한다. 그리고 형식은 한참이나 황홀하였다.
>
> '그러나!' 하고 형식은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영채는 처녀가 아니다. 설혹 어저께까지는 처녀라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는 이미 처녀가 아니로다.' 하고 청량사의 광경을 한번 다시 그렸다.[4]

'은인의 딸'이라는 과거의 인연을 도의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 외에 영채는 선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제시된다. 영채를 만난 순간부터,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생임을 알고 나서부터 시작된 형식의 의심은 오로지 영채의 처녀 여부에 집중된다. 위 인용문은 영채가 강간당한 이후 형식의 내면을 기술한 것인데, '처녀가 아님을 확인했다는 판단'이 비로소 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토록 '줏대 없이'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 감을 표현하는 것 치고는 다른 한 쪽의 선택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작가의 고육지책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형식이 영채를 포기하고 선형을 선택하는 수순에 강간 모티프가 개입된 것 자체만으로 김동인이 '줏대 없다'는 비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형식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기준과 이유로 동일한 고민을 반복하고만 있다. 마치 형식은 바로 얼마 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것 같다. 그러는 동안 수십 회 연재분이 지나가도록 분명한 선택은 끊임없이 지연된다.

사실 형식은 영채를 다시 만난 첫날부터, 영채의 파란만장한 옛

4) 이광수, 『무정 외』(한국소설문학대계2), 동아출판사, 1995, 141면. 이하 『무정』 작품 인용은 같은 책의 면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이야기를 목전에서 듣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영채의 처녀성을 의심하고 있다. 형식의 안타까움은 마치 영채가 그토록 험난한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한 동정보다는 영채의 몸이 뭇 남성들에 의해 유린되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그런데 영채가 강간을 당한 사건 이후 내용에서 작가는 형식으로 하여금 영채를 버리게 하는 이유가 처녀성의 상실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기 시작한다. 영채를 선택하지 않고 선형을 선택하는 것은 소위 '시대정신'에 의한 것이라는 작가적 메시지가 올바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채는 자살을 결심하고 평양으로 간다. 이 사실을 안 형식은 죽음을 선택한 영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장황하게 비평하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형식은 이론(理論)으로는 영채의 행위를 그르다 하면서도 정(情)으로는 영채를 위하여 울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영채를 '낡은 여자'라 하고, 다시 형용사를 붙여서 순결열렬한 구식 여자라 하였다. 그러나 우선은 이번 영채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선하다 한다. 하나는 영문식(英文式)이요, 하나는 한문식(漢文式)이로다.[5]

결국 『무정』이 지닌 연애의 삼각 구도는 신구(新舊)의 대립구도로 전환되고, 영채는 '순결하지 않은 여자'여서가 아니라 '낡은 여자'이므로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영채냐, 선형이냐' 하는 형식의 위와 같은 지리멸렬한 고민이 숱한 우여곡절과 함께 전개되는 동안 소설 속 시간은 단 사흘이 지났다는 점이다. 형식이 김 장로의 집으로 가정교사로서의 첫 출근을 하고, 하숙을 찾아온 영채를 만나 지난 날 고생한 이

5) 『무정』, 168면.

야기를 듣고, 학교에서는 동맹 휴학이 일어나고, 형식이 영채가 있는 기생집을 찾아가고, 영채가 김남작의 아들과 배학감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실심한 영채가 자살을 결심하여 평양으로 떠나고, 뒤미처 형식이 우선과 함께 기생집에 왔다가 영채의 평양행을 알게 되는 것까지, 이 모든 일들이 2박 3일 동안 일어났다.

바로 그날 밤 형식은 평양으로 뒤따라가고, 다음날 평양역, 경찰서를 거쳐 계향이라는 어린 기생을 만나며, 느닷없이 영채 찾는 일을 포기하고 서울로 향한다. 그 다음날 형식은 출근했다가 주위 사람들의 오해에 분개하여 학교를 때려치우고, 하숙에 돌아와 영채에게 무정했음을 깨달은 나머지 다시 평양으로 향하려다가, 갑자기 방문한 목사와 함께 김 장로의 집으로 가서, 놀랍게도 바로 그날 약혼을 한다.

총 4박 5일 동안 이렇게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연속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것을 서술하는 데 85회에 이르는 연재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더 놀랍다. 물론 그 사이에는 영채와 형식의 지난 일들, 각각의 수난담이 요약 제시되어 있다. 주변 인물들을 묘사하는 부분이 개입되어 있으며, 장광설에 가까운 형식의 사유가 단행본 기준 몇 페이지에 걸쳐 펼쳐지기도 한다. 아무튼 달라지지 않는 것은 형식의 시간이 5일 흐르는 동안 그것을 전해 듣는 독자의 시간은 4개월 가까이 흘렀다는 사실이다. 전체 126회 연재분 중 3분의 2가 형식의 '선택을 위한 고민의 과정'에 할애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사 지연 전략은 연재소설의 특성상 독자들로 하여금 이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다. 독자들의 궁금증이란 결국 형식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작품이 보여 준 서사 지연 전략이 효과적인 것이었는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것을 기획한 작가의 의도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형식의 선택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독자 대중

을 계몽시키기 위해서는 사건의 요약적 전개 혹은 필연성보다 인물의 가치관 제시 및 선택 결과의 당대적 타당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동인이 지적했듯 형식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순투성이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 형식의 고민이란 작가 이광수에 의해 강요된 일종의 제스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결론이 난 상태에서 고민은 지속해야 하니 매번 우왕좌왕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등장인물 '형식의 고민', 그것의 내용과 수준이 아니라 작가 이광수가 고안한 '고민의 형식(形式)'이다.

2) 남성 인물을 매개로 한 전망의 탐색

다수 독자의 기대를 배반하는 결론을 낸 상태에서 이광수는 형식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대 지식인이 고민하는 표정을 그려냈다. 형식은 결국 이광수의 가치관에 따른, 당대에 필요한 지식인의 행동양식을 보여주기 위한 인물이다. 형식의 무정한 선택을 독자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시된 방향성에는 동의할 수 있어도 심정적으로는 저항감을 느끼는 독자들이 많았으리라 추측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응에는 전에 보기 힘들었던 '줏대 없는', 고민하는 인물의 존재가 한 가지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아무튼 작품 서두의 선택이 우여곡절의 전개로 이어지고 운명적 결말로 수렴되는 인과율의 구조에서 『무정』은 한 걸음 벗어나 있다. 애정 문제를 포함한 인간 만사가 보편적 가치에 의해 재단되고 시공을 초월한 인생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전대의 서사와 차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마치 무비판적인 태도로는 살아낼 수 없는 시대, 고민하지 않고는 어떤 선택과 결정도 할 수 없는 시대가 근대라는

작가의 자각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고민의 형식은 이후 많은 작가들에 의해 변주되었다. 한 순간의 선택이 어떤 파급효과를 지니는지를 따라가는 서사가 아니라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궁금해 하며 함께 가는 서사다. 이는 사실 우리 근대문학이 선명한 전망을 제시할 수 없는 시대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작가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작법으로 인식되었을 법하다.

우리 소설사의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고민하고 주저하는 지식인 유형의 인물들은 나름대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줏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제가끔 당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에도 게으르지 않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나 가능성이 얼른 보이지 않는 만큼 고민의 결론 또한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최명익의 「무성격자」나 「심문」의 인물 '정일'과 '명일'의 경우가 그렇다. 「무성격자」의 정일이 '문주'의 근거리에서 보여주는 방황과 주저는 두 가지 삶의 방식 사이의 고민으로 독자에게 제시된다.

> 이러한 문주와 자기의 생활에 자연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면서도 퇴폐적 도취가 그리워 패잔한 자기의 영상을 눈앞에 바라보며 아편굴로 찾아가는 중독자와 같이 교문을 나선 발걸음은 어느덧 문주의 처소로 찾아가는 것이었다.
>
> 이러한 생활을 반성하며 한나절 후에 집에 닿았을 때 병석에서 신음하리라고 생각하였던 정일이의 아버지는 전보다 좀 더 수척하였을 뿐 여전히 사랑에서 그의 채무자와 거간과 대서인들을 상대하고 있었다.[6]

6) 최명익 · 유항림 · 허준 · 안회남, 『심문 · 마권 · 잔등 · 폭풍의 역사 외』(한국소설문학대계24), 동아출판사, 1995, 51면. 이하 최명익의 작품 인용은 작품 제목과 함께 같은 책의 면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정일의 현재 상황은 현실 도피적이고 퇴폐적인 생활과 현실 순응적이고 탐욕스러운 생활의 경계에서 진자 운동을 하는 추와 같다. 문주와 아버지의 성격에 의해 대표되고 구별되는 양극단 사이에서의 끝없는 고민과 방황, 반성의 과정이다. 『무정』의 형식이 양자의 긍정성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한 쪽의 부정적 측면을 발견하고 배제함으로써 다른 한 쪽으로 다가가는 선택을 한 것이라면, 「무성격자」의 정일은 양자의 부정적 속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나마 어느 쪽이 일말의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결국 정일은 소설의 마지막 단락에 이르러서야 문주가 아닌 아버지 쪽으로 향하는 선택을 한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은 유예되고 고민은 지속된다. 그런데 독자는 결말 부분에서의 정일의 선택에 대해 속 시원히 긍정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어쩌면 그 선택이 최종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거나 종래의 방황이 곧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나날이 쇠약하여 간다는 문주는 자기의 죽음이 정일이의 인생의 길을 터주는 보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러한 자기의 말을 주제넘은 말이라고 정일이가 비웃어 주기를 바란다고, 문주 너 때문에 내 일생을 그르칠 정일인 줄 알았더냐고 자기의 말을 비웃고, 문주 너와의 관계는 한때 침패한 내 생활의 희련(戱戀)이었을 뿐이라고 웃을 수 있는 뱃심이 정일이에게 생기기를 바란다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자기가 죽은 후에 제이 문주가 정일이의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또 사랑하게 될 것이 아니냐고, (…중략-인용자…) 문주의 말을 자기는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위인인가고 생각하였다.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7]

정일 자신도, 문주도 사실은 알고 있다. 퇴폐적 생활에 매혹을 느끼지만 투족할 용기가 없어서, 탐욕스러운 세속적 현실에 염증을 느끼지만 거부할 용기가 없어서 언저리에서만 서성이는 정일의 방황은 지속될 것이다.

「심문」의 명일 또한 현재의 무기력한 생활을 바꾸어야 하겠다는 의식이 있지만 어떤 실천도 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나마 떠밀리듯 긴 여행을 떠나고 그곳에서 생활의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일종의 선택을 요구받지만, 결단력 있는 태도나 새 삶에의 의지를 내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다가 마침내 여성 인물의 파국을 목격하게 된다.

명일은 지속적으로 여옥의 주변을 맴돌고 가끔은 함께 사는 것을 꿈꾸어 보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 잡지 않고 망설인다. 여옥이 죽은 아내 혜숙과 닮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옥이 혜숙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옥이 혜숙과 완전히 닮았더라면, 혹은 여옥이 혜숙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면 명일은 여옥을 새 배우자로 선택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명일은 다른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에게서 혜숙과 닮은 점을, 그리고 다른 점을 찾아내고야 말 사람이니, 누군가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 뻔하다. 혜숙은 이미 죽었고 명일의 방랑은 지속될 것이다. 혜숙과 함께한 이상적인 삶은 더 이상 유효한 선택지가 아니며, 그런데도 그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다른 선택지를 외면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읽힌다.

어찌 보면 정일은 누가 봐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 머뭇거리는 중이고, 명일은 아무리 애써도 갈 수 없는 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셈이다. 한쪽의 선택지는 소설 속 상황에 의해 이미 지워져 있는데, 남은 하나의 선택지를 취할 마음은

7) 「무성격자」, 68면.

아무래도 생기지 않는다. 즉 끝없는 고민과 탐색의 과정이 이어지더라도 결국 차선도 되지 않는 차악을 받아들이거나 파국의 상황을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명익 소설 속 남성 인물들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무정』이 보여주었던, 미래에 대한 답이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의 '고민의 형식'은 '최선의 선택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틀'이 아니라 '작가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최명익 소설의 남성 인물들이 보여 주는 고민과 방황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당대의 삶이 야기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들에게 있어 고민이란 일종의 제스처가 아니라 숙명처럼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이다. 즉 193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 상황은 지식인의 치열한 모색 과정이 수반되더라도 실낱같은 전망을 이끌어내기 힘들 정도로 절망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무정』의 독자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형식이라는 남성 인물 형식의 고민을 뒤따라가다가 그를 통해 이광수가 제시하는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반면 「무성격자」나 「심문」의 독자에게는 정일 혹은 명일의 고민을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를 스스로 모색하는, 단순치 않은 과제가 주어져 있다.

3. 선택의 오류와 수난의 서사

1) 희생의 후경화, 수난의 변주

이전 장에서 거론한 고전소설 「주생전」의 배도는 주생에 의해 버

림받고 사랑을 지척에 두고서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그런가 하면 『무정』의 영채는 형식의 선택을 받지 못한, 애정 관계 속에서의 패배자이다. 배도와 영채가 선화와 선형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데는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가 크게 작용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도 이들이 기생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유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배도의 경우 집안이 몰락하고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자 남의 손에 길러지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생이 된 것이라면, 영채의 경우에는 옥중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기생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 내가 이제 옛날 처녀의 본을 받아 내 몸을 팔아 돈만 얻으면 아버지와 오라버니는 옥에서 나오시렷다. (옥에서 나오시면 나를 칭찬하시렷다.) 세상 사람이 나를 효녀라고 칭찬하렷다.[8]

영채의 능동적인, 그러나 성급한 선택은 이후의 작품 전개 과정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우선 부친과 오라버니가 옥중에서 자살하는 이유가 되고, 여러 남성들에 의해 봉변을 겪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어렵사리 다시 만난 형식에 의해 끊임없이 의심을 받는 계기가 되고, 마침내 김현수와 배명식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근·현대소설 속에서도 끊임없이 호명되고 소환된 심청과 춘향의 형상을 독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텍스트 속에서 고전적 복선화음의 시공간 속에 최종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차가운 당대 현실의 그늘에 방치되거나 심지어 희생되기도 한다. 그들의 수난과 비극적 희생에는 전근대 작품들과 어떻게 다른 논리가 숨어 있는

8) 『무정』, 53면.

것인가.

고전소설 「주생전」의 배도가 품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배경에는 질투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승상 댁의 규수를 대상으로 한 기생의 질투가 애정의 대립 구도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희박했을 것이라 보인다. 게다가 배도가 고향에 돌아온 주생과 재회했을 때 자신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차근차근 따져 보면 당대의 봉건적 질서 속에서 그녀가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이제 낭군을 보니 풍치와 거동이 빠여나고 직조와 의시 쥰일ᄒᆞ고 호매ᄒᆞ니 쳡이 비록 미쳔ᄒᆞ나 원컨대 침셕을 ᄀᆞᆷ알며 슈건과 비ᄉᆞᆯ 밧들리니 원컨대 낭군이 일즉 급뎨ᄒᆞ야 쳡의 일홈을 기적의 업시ᄒᆞ야 조샹 일홈을 더러이 아니케 ᄒᆞ시면 이ᄂᆞᆫ 쳡의 ᄇᆞᄅᆞ던 원이 ᄆᆞᄎᆞ리니 비록 쳡을 ᄇᆞ리셔도 몸이 ᄆᆞᆺ도록 은혜ᄅᆞᆯ 감동ᄒᆞ리라(밑줄 - 인용자)[9]

배도는 주생에게 빠른 시일 내에 급제할 것, 그래서 자신을 기생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만 하면 비록 자신을 버리더라도 감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귀족 집안의 규수이던 배도가 기적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를 출세시키고 그 힘을 빌려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봉건적 질서에 대한 무모한 도전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주생이나 선화의 시선 속 배도는 아름답고 재주 있는 여성이지만 여흥을 북돋우는 데 기여하고 복무하는 한낱 기생일 뿐이다. 선화에

9) 간호윤, 「〈주생전〉·〈위생전〉 원문 국역본」, 『새로 발굴한 〈주생전〉·〈위생전〉의 자료와 해석』, 박이정, 2008, 125면.

게 질투를 느끼고 애정적 경쟁 구도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

배도의 부질없는 욕망과 비참한 최후는 그러나 작품의 전면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후경화되어 있다. 그 대신 전경화된 것은 사랑에 실패한 주생의 슬픈 얼굴이다. 선화와의 꿈같은 사랑이 좌절되고 첫사랑 배도와도 사별하기에 이른 주생의 처지는 한 번 품은 뜻을 세상에 펼쳐 보지도 못한 비운의 재사(才士) 이미지와 겹쳐 비극적으로 형상화된다. 배도의 희생은 이 과정에서 주생의 비극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기능하거나 어둡고 쓸쓸한 배경 정도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무정』을 형식의 서사와 영채의 서사가 더해진 작품이라고 할 때, 작품의 전면에 드러난 것은 역시 형식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영채의 서사는 배도의 서사가 그랬던 것처럼 주서사를 둘러싼 주변의 서사이거나 작품의 무대 즉 시공간을 다채롭게 하는 배경의 서사다. 『무정』의 주제 및 근대적 성취가 형식의 서사로부터 견인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그에 비해 영채의 서사는 고전소설로부터 상투적 신소설로 이어진 전근대적 수난담의 재현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채의 서사가 담당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수적이거나 제한적이다.

형식이 선택의 상황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인물로 묘사된 것과 대조적으로 영채는 별다른 고민 없이 중요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감내하는 인물이다. 그 선택은 도덕적으로, 더 정확히는 전근대적 윤리에 입각하여 볼 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채가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질 수 없었다.

영채가 기생이 되는 선택을 한 배경에는 전통적 효의 덕목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불효로 인해 부친과 오라버니가 죽음을 맞이하는 참상으로 이어졌다. 깨끗한 몸을 지키며 언젠

가 형식을 찾으리라는 결심은 정절의 가치에 기인한 것이지만, 많은 남성들의 야욕을 스스로 집중시키고 형식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비극적 처지는 따져 볼 것도 없이 최초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이다.

어쩌면 고전소설 속 인물인 배도의 형상, 즉 영악하게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인 주생과 타협 혹은 거래를 하며 신분 회복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추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근대소설의 여주인공 영채와 비교해 볼 때 훨씬 근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지나친 결과론일지는 모르지만, 배도는 전근대적 현실 상황에서 근대적 선택을 하고 희생된 것이다. 영채는 근대적인, 혹은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는 현실[10] 상황에서 전근대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희생되고 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고전소설과 다수의 신소설에 내재된 여성 수난의 서사구조는 주인공의 고난이 극복되고 행복한 결말로 귀착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때 고난의 지속과 반복은 독자들의 감정을 텍스트에 이입시키는 장치이며, 고난 극복의 단계에서 구원자 혹은 조력자가 등장하는 것은 여성 인물이 작품세계 속에서 능동적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여성 인물의 성격이 어질고 선하며 아름다운 고전적 가인의 형상으로 묘사되는 것은 독자들의 감정 이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남성 인물보다 여성 인물이 수난의 서사구조에 동원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 인물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제시할 때 독자는 주인공이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구원자의 조력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을 쟁취하는 결말구조

10) "『無情』의 시대가 내포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이미 '개화된' 시대가 아니라 '개화를 요구하는' 시대라는 점이다."(송하춘, 『1920년대 한국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12면.)

는 독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인 동시에 당대의 가치관과 사회적 맥락이 텍스트에 투영된 결과이다.

그런데 근대 초기 이후 우리 서사문학 텍스트 내에는 예의 어질고 선하고 아름답지만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행복에 다다르지 못하는 비극적 여성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그들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당대의 가치관 및 사회적 맥락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작가가 파악한 시대적 과제와 사회 변동의 지향성이 당대 독자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에 있다. 임화가 말한 이른바 "민중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의식의 반봉건성(半封建性)"[11] 때문이다. 아름답고 선량하지만 낡은 의장과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성 인물에게 무정해도 아무렇지 않은 독자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박영채에게 필요한 것이 또 다른 구원자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신여성 병욱의 등장과 그에 의해 주어진 근대 교육의 기회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던 영채를 대동강에 수장시키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종의 의례이다. 85회 연재분까지의 『무정』이 새로움의 요구에 의해 배제되고 패배한 '낡은 영채'의 수난담, 그 중에서도 신소설 이후에 본격화된 희생의 서사였다면, 이후 최종회까지의 내용은 부활한 영채가 새 시대를 이끌고 갈 청년 세대의 각성에 감격스럽게 동참하는 성장담이라고 할 만하다.

2) 여성 인물을 매개로 한 당대 현실의 반영

여성 인물의 수난은 1930년대 후반 최명익 소설에서도 계속된다. 「심문」의 여성 인물 여옥은 퇴폐와 향락의 도시로 묘사된 하얼빈에

11) 임화, 「개설 신문학사」, 『조선일보』, 1940.2.8 ; 임규찬·한진일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167면.

서 카페 여급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 간다. 여옥이 당하는 고난은 비단 생활고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믿었던 과거의 연인 현혁은 말기 중독자이며 여옥을 곁에 묶어 두기 위해 마약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

중독자가 된 여옥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롱 속의 새와 같은 신세이다. 기생 신분에 얽매여 남성들의 욕망에 철저히 대상화되는 이전 서사의 여성 인물들과 비슷하다면 비슷한 처지이다.

어찌 보면 남성 인물이 정처 없는 유랑의 과정에서 예전에 인연이 있던 여인을 만난다는 점, 그 여성 인물이 오랜만에 만난 남성을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줄 구원자로 여긴다는 점, 그러나 끝내 남성 인물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성 인물은 숙명과도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심문」은 고전소설 「주생전」과도 많이 닮았다.

연민 혹은 호감을 느낄 만한 여러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남성 인물, 그 남성 인물의 외면이 여성 인물의 고난을 초래하거나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 등은 「심문」과 「무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사점이다.

「심문」의 여옥에게도 두 가지 선택 가능한 지점이 있었다. 조선에 남아 기존의 삶을 이어갈 수도 있었고, 만주로 가서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여옥도 명일처럼 경계에 서 있었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망설이는 중이었다.

여옥에게 있어 조선에서의 삶은 명일과 함께 불안한 동거를 지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만주에서의 삶이란 현혁을 찾아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대안적 생활의 시공간을 개척하는 일이다. 두 가지 가운데 여옥은 도전을 선택했다.

여옥의 이 선택은 작품의 앞부분에서 명일의 회상에 의해 제시되지만, 첫 장면이 명일의 하얼빈 행 기차 안 풍경임을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감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본시 고아인 여옥이는 여급으로, 티룸 마담으로 전전하다가 평양까지 와서 나를 알게 되었다. 그 얼마 후에 우연히 만난, 동경시대의 현의 친구에게 현이 하얼빈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오륙 년이라는 세월을 격하여 현을 따라갈 몸도 처지도 못 되므로 용기는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 "오룡배가 얼마 멀지는 않아도, 아마 국경을 넘었다는 생각만으로도 하얼빈이 지척같이 생각되었던 게죠…… 그러구 또, 그때는 그럴 만도 하게 되잖았어요!"[12]

여옥의 선택은 용감하리만큼 충동적으로 감행되었다. 옛 연인을 찾아 낯선 타국 땅으로 떠난다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 여옥에게는 치열한 고민이나 꼼꼼한 계산이 아닌, 적당한 용기가 필요할 뿐이었다.

> 이렇게 돌연히 떠나고 싶은 생각이 스스로 놀랍기도 하였사오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본시 그런 신세로 그렇게 지내온 몸이라 갈 길을 가는 듯도 하올시다. 저로서도 무엇을 구하여 가는지 전혀 지향 없는 길이오니 애써 찾아 주지 마시옵소서. 얼마의 여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신 반지도 가지고 갑니다.
> 여옥 배(拜)[13]

여옥의 "본시 그런 신세"란 의지할 데가 없는 처지를 말한다. 고아이니 부모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며, 한동안 함께 지낸 명일은 끝내 마음을 받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길을

12) 「심문」, 102면.
13) 「심문」, 81면.

떠나 보는 것이지만, 지향이 없다. 그대로 살 수는 없어서 달리 살 길을 찾는 것인데, 그렇게 떠난 길의 끝에서 어찌 될는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무슨 숙명처럼 여옥은 전락의 과정을 밟았고, 죽음에 이르렀다.

> 숙명이란 이렇다 할 원인이 없는 결과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다. 원인이 있다더라도, 지금 마주 앉은 중년 여사의 신약전서에 있을 '죄는 죽음을 낳고'라는 '죄'와 같이 추상적인 것으로, 그런 추상적 원인이 '죽음'이라는 사실적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이 숙명이라면 우리는 그런 숙명 앞에 그저 전율할밖에 없을 것이다.[14]

여옥이 죽은 것은 사실적 결과이지만 그 죽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따지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여옥은 무슨 죄를 지어서 희생된 것일까. 어쩌면 그 죄란 인과율에 의해 죽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여옥은 명일을 떠나 과거의 연인을 찾아갔다. 과거의 연인 현혁은 "사람은 허무한 미래로 사색적 모험을 하기보다도 거짓 없는 과거로 향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아편 연기 속에서 지난 꿈을 전망하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스러운지 모른다"[15]는 등의 궤변으로 여옥을 유혹했다. 여옥은 현혁의 마약 권유를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현혁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함께 중독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마약 중독자가 되기 위해 하얼빈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여옥 또한 과거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명일과 조선 땅을 등지는 선택을 했다. 현재의 토대 위에서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과거로 도피한 것,

14) 「심문」, 82면.
15) 「심문」, 104면.

그런데 그것을 조선이 아닌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마냥 위장한 것이 여옥이 지은 죄라면 죄인 것이다.

죄는 이처럼 추상적이거나 애매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여옥은 충동적이고 섣부른 선택 때문에 스스로 제물이 되어 희생제의의 제단에 바쳐졌다. 남성 인물 명일은 마지못해 이끌린 것처럼 그 희생제의에 참례하게 되는데, 자신이 아직 가지 않은, 언젠가는 갔을지도 모를 길을 먼저 밟아 간 여옥의 죽음을 목격한다. 그 길은 가서는 안 될 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여옥의 수난은 성격적 결함에서 기인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을까? 당대 현실 상황 속에서 식민지 백성이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보편적 성격의 수난이라고, 역사 사회적으로 확장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명일의 눈에 비쳐진 참상은 한 아편 중독자의 애달픈 죽음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원죄요, 숙명과도 같은 현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무정』의 근대소설적 가치는 여러 국면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형식이라는 낯선 인물을 창조했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주생전」의 행동적인 남성 인물과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형식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주저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는 인물이다. 형식은 선형과 영채 두 여성 사이에서 '줏대 없이' 고민하는데, 이러한 형식의 성격은 자신의 선택을 계속해서 미루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실 이러한 형식의 모습은 고민의 포즈에 불과하다. 그는 무정한 처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채를 버리고 선형을 택해야 한다는 판단을 애초부터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채의 처녀성을 운운하고,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대비시키며 장광설을 펼치는가 하면, 시체라도 찾겠다는 결심으로 평양에 갔다가, 이내 돌아와 그 날로 약혼을 한다. 이쯤 되면 김동인이라는 비우호적 독자가 아니더라도 형식이 그때까지 나름 치열하게 행했던 고민이라는 것을 도무지 신용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이든 허울뿐인 것이든 이광수에 의해 '고민의 형식'이 선보였다는 점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후 소설에서 이러한 고민의 형식은 지속적으로 차용되고 변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마련된 틀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으면 되는 일이었다.

『무정』이라는 작품의 전면에 나서서 독자들에게 각인된 인물은 단연 형식이다. 전체 분량 중 삼분의 이가 연재 형식으로 발표될 때까지, 당대의 독자들은 형식의 말과 생각을 전해 듣고 공감하거나 혹은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어떤 선택을 최종적으로 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이다. 형식의 선택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4개월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전달된 서사 내용은 작품 내 시간을 기준으로 고작 사오 일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이와 같은 서사 지연 전략은 당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형식의 표정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기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

형식이 끊임없이 선택을 유예시키는 인물이라면 영채는 섣부른 선택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고 고난의 길에 접어든 인물이다. 작가의 입장에서 영채는 동정 받을 수는 있어도 잘못된 선택이 야기한 혹독한 대가를 피해갈 수는 없는 인물이다. 『무정』의 영채뿐 아니라 근대 초기 이후 우리 서사문학 텍스트 내에는 전근대적 긍정성을 지니고 있으나 비극적 운명의 희생양이 되는 여성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

다. 요컨대 그들은 시대착오적 선택에 의해 인생을 그르쳤다는 것이다.

남성 인물의 방황 혹은 고민, 여성 인물의 고난과 비극적 운명이 서사의 양축을 이루어 전개되는 전·후대의 작품으로 고전소설 「주생전」과 1930년대 최명익의 「무성격자」, 「심문」을 함께 분석하였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주생전」과 다르거나 그로부터 진전된 요소가 『무정』의 근대소설적 면모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최명익의 인물들은 주생처럼 방랑하고 형식처럼 고민하며 배도나 영채처럼 버림받는데, 계몽기가 아닌 암흑기를 살아가는 인물답게 모색의 서사를 추동하는 남성 인물들의 고민은 끝내 전망의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수난의 서사에 얽매인 여성 인물들은 철저히 희생되어 거듭남의 기회도 가지지 못한다.

최명익 소설의 남성 인물들이 보여 주는 고민과 방황은 형식적인 제스처가 아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이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은 당대 지식인들의 치열한 모색의 과정을 절망적인 무한궤도로 만들어 버렸다.

어찌 보면 이들이 끝내 능동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여성 인물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단지 방관하는 것은 작법론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결국 남성 인물들은 비극적 희생제의의 제물이 된 여성 인물들을 관찰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사실 수난 서사의 여성 인물이 행한 최초의 선택은 남성 인물의 앞에도 갈림길의 형태로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남성 인물은 여성 인물이 먼저 밟아 간 길을 지켜볼 수 있었으므로, 그 선택과 방향이 잘못된 것임을 반면교사 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시대별로 그리고 작품별로 구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달랐겠지만, 본 논문이 분석한 작품들 외에도 여성 인물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내용이 예외적이고 특별하다기보다는 당대적 보편성을 띠고 있

다고 여겨지는 작품들이 허다하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적 남성 인물에게 특별한 대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작가의 현실 인식 내용과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차별의 작법이 당대 혹은 후대에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거나 어느 지점에 귀착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작업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간호윤, 『새로 발굴한 「주생전」, 「위생전」의 자료와 해석』, 박이정, 2008.

이광수, 『무정 외』(한국소설문학대계2), 동아출판사, 1995.

최명익 · 유항림 · 허준 · 안회남, 『심문 · 마권 · 잔등 · 폭풍의 역사 외』(한국소설문학대계24), 동아출판사, 1995.

2. 논문 및 단행본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7, 2002, 105-134면.

김경애, 「신소설의 ‘여인 수난 이야기’ 연구」, 『여성문학연구』 6, 2001, 111-134면.

김복순, 「『무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 『대중문화연구』 14, 2005, 193-238면.

김치홍 편저, 『김동인 평론전집』, 삼영사, 1984.

문한별, 「이광수, 『무정』과 활자본 고소설 『채봉감별곡』의 공시적 비교 연구 -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5(2), 93-114면.

송하춘, 『1920년대 한국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이주형, 「일제강점시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수난의 형상화 양상」, 『국어교육연구』 29, 1997, 173-200면.

임규찬 · 한진일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최성윤, 「여성 인물의 운명과 소설 공간의 위계」, 『현대소설연구』 67, 2017, 421-445면.

최성윤, 「최명익 소설의 세속과 탈속」, 『Journal of Korean Culture』 41, 2018, 93-123면.

<Abstract>

Narratives of ‘Suffering’ and ‘Search’, and the Question of ‘Choice’ −Foregrounded ‘Troubles’ and Backgrounded ‘Sacrifice’−

Choi, Sung-Yun

This paper analyzed the classical novel *Jusaengjeon* and Choi Myung-ik's Novel in 1930 *A Man without Personality, Sim-Mun* together with Lee Kwang Soo's long-length novel *Mujeong* as a link. These four novels have a great difference in the time of creation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but they have many common points in terms of narrative structure and character composition.

These works shape a male figure who is wandering or worried, and a female figure who is abandoned or suffering in common. Male characters are at the crossroads of choice that can be replaced by the question of what life to live, but their choices are delayed and their worries persist. On the other hand, female characters are already set to make some choices at the beginning of the work, and their first choice is wrong, so they are facing the current hardship in the work. Female characters hope to change the way of life by borrowing the power of male characters, but male characters ignore or hesitate. The suffering of female characters persists or deepens, eventually they reach the end of tragic fate.

‘A narrative of search’ in which the wandering and troubles of male characters are foregrounded. ‘A narrative of suffering’ in which the fate and sacrifice of female characters are backgrounded. These two axes narrative are developed together in these works. In particular, *Mujeong* has acquired the modernity of the writing that is distinguished from classical narrative in that it attempted a ‘form of trouble’ that is hard to find before. Then, *A Man without Personality, Sim-Mun* searched the prospect through the male characters and reflected the reality of the time through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works.

Key words: *Jusaengjeon, Mujeong, A Man without Personality, Sim-Mun*, Choice, Search, Suffering, Trouble, Form of Trouble, Male Character, Female Character, Intertextuality, Genealogy of Text

투 고 일 : 2018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12월 26일